

프렌치 다스패치

OF THE LIBERTY, KANSAS EVENING SUN

EPK 다운로드

[G파일]

ID: sconis PW: topscon

영화 관련 문의는 스콘(02-334-8855, scon@scon-is.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제	목	프렌치 디스패치
원	제	THE FRENCH DISPATCH
감	독	웨스 앤더슨
출	연	틸다 스윈튼, 프란시스 맥도맨드, 빌 머레이, 제프리 라이트, 애드리언 브로디, 베니시오 델 토로, 오웬 윌슨, 레아 세이두, 티모시 샬라메, 리나 쿠드리, 스티브 박, 마티유 아말릭
수입/배급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러닝 타임	107분	
관람 등급	15세 관람가	
북미 개봉	2021년 10월 22일	
국내 개봉	2021년 11월 18일	

SYNOPSIS

**‘프렌치 디스패치’의 마지막 뉴스레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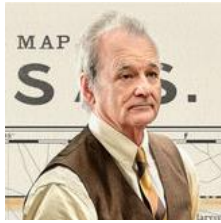
20세기 초 프랑스에 위치한 오래된 가상의 도시 블라제
다양한 사건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미국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편집장의 죽음으로
최정예 저널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마지막 발행본에 실을 4개의 특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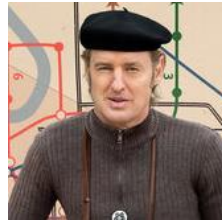
**당신을 매료시킬
마지막 기사가 지금 공개된다!**

PROLOGUE

‘프렌치 디스패치’ 기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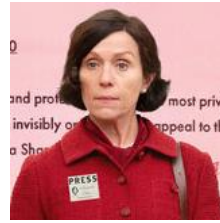
아서 하워처 주니어



허브세인트 새저랙



J.K.L 버렌슨



루신다 크레멘츠



로백 라이트

특종의 주인공들!

#1 콘크리트 걸작



모세 로젠탈러



시몬



줄리안 카다지오

#2 선언문 개정



제피렐리



줄리엣

#3 경찰서장의 전용 식당



경찰서장



네스카피에 경위

ABOUT MOVIE 1

제74회 칸영화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웨스 앤더슨 감독의 10번째 마스터피스! 21세기 최고의 미장센 대가가 선사하는 독보적인 비주얼!

할리우드 최고의 비주얼리스트로 손꼽히는 웨스 앤더슨 감독이 10번째 마스터피스 <프렌치 디스패치>로 돌아온다. 개봉 전부터 미장센 대가의 신작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프렌치 디스패치>는 제74회 칸영화제와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어 “한 편의 미술 작품 같은 작품”, “올해 최고의 마스터피스”와 같은 극찬을 받으며 전세계 영화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문라이즈 킹덤> 등의 작품을 통해 정교한 미장센과 아름다운 영상미를 선보이며 영화 마니아들을 황홀경에 빠뜨린 바 있다. 이렇듯 아름답고 유니크한 미장센으로 관객을 사로잡은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 <프렌치 디스패치>는 갑작스럽게 마지막 발행본을 준비하게 된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의 최정예 저널리스트들이 취재한 4개의 특종을 담은 작품이다. 자전거를 타고 도시의 숨은 매력들을 보여주는 기자 ‘허브세인트 새저랙’, 현대 미술에 조예가 깊은 기자 ‘J.K.L 베렌슨’, 학생 운동을 취재하는 고독한 에세이스트 ‘루신다 크레멘츠’, 해외파 박식가 기자 ‘로버트 라이트’까지 최고의 저널리스트들이 한데 모여 20세기 초 프랑스에 위치한 가상의 도시 ‘블라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프렌치 디스패치>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웨스 앤더슨 감독과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던 할리우드 최정예 제작진들이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웨스 앤더슨 감독과 다수의 작품을 함께하며 시각적 아름다움을 선보였던 프로덕션 디자이너 아담 스톡하우젠과 로버트 예맨 촬영 감독이 이번 작품에서도 함께한다. 여기에, 캐릭터에 생동감을 더하는 의상 디자인으로 아카데미 의상상을 2회 수상한 의상 디자이너 밀레나 카노네로,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거머쥔 작곡가 알렉상드르 데스플라가 합류해 영화에 풍성함을 더했다. 독보적인 미장센의 대가 웨스 앤더슨 감독과 할리우드에서 손꼽히는 비주얼리스트들의 환상적인 팀워크로 완성된 <프렌치 디스패치>는 아름다운 색감과 영상미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ABOUT MOVIE 2

12명의 황금 라인업! 본 투 비 뮤즈 X 뉴 페이스 뮤즈 웨스 앤더슨 사단의 완벽한 앙상블!

매 작품 개성이 살아 숨 쉬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을 위해 할리우드 최정상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웨스 앤더슨 사단'으로 잘 알려진 베테랑 배우들은 물론 새롭게 합류한 뉴 페이스 배우들까지. 영화제 레드카펫에서도 한꺼번에 만나보기 힘든 배우들이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환상적인 앙상블을 선보인다.

먼저, 웨스 앤더슨 감독과 수많은 작품을 함께하며 호흡을 맞춰온 '본 투 비 뮤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그의 뮤즈로 거듭난 배우 킬라 스윈튼이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J.K.L. 베렌슨' 기자로 분해 독보적인 아우라를 뽐어낼 예정이다. 오스카 여우주연상 3관왕을 거머쥔 연기파 배우 프란시스 맥도맨드는 학생운동에 가담하는 청춘들의 사랑과 죽음의 연대기를 취재하는 고독한 에세이스트 '루신다 크레멘츠'를 맡았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매력적인 캐릭터를 선보인 프랑스 대표 배우 레아 세이두는 천재 예술가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뮤즈이자 교도관 '시몬'으로 분해 이제껏 본 적 없는 파격 변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할리우드 대표 괴짜 배우 빌 머레이, 한계 없는 연기 스펙트럼의 소유자 애드리언 브로디, 믿고 보는 연기 장인 오웬 윌슨, 프랑스 국민 배우 마티유 아말릭까지 웨스 앤더슨 감독의 '본 투 비 뮤즈'들이 한데 모여 빛나는 연기로 극의 완성도를 더한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배우들이 웨스 앤더슨 사단의 '뉴 페이스 뮤즈'로 합세해 화제를 모은다. 특히, 세계적인 거장 감독들에게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는 배우 티모시 샬라메의 출연은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다. 학생운동의 리더 '제피렐리' 역을 맡은 티모시 샬라메는 이번 작품을 통해 외적인 변신까지 꾀하며 새로운 매력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전망이다. 이어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스크린을 압도하는 배우 베니시오 델 토로가 감옥에서 세기의 걸작을 탄생시키는 천재 화가 '모세 로젠탈러'역을 맡아 <프렌치 디스패치>가 전하는 아름다운 미장센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여기에 할리우드에서 손꼽히는 연기파 배우 제프리 라이트, 제45회 세자르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한 리나 쿠드리,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스티브 박이 각기 다른 매력의 캐릭터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ABOUT MOVIE 3

한시도 눈 땀 수 없는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은 아름다운 영화! 웨스 앤더슨 감독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미장센의 향연!

21세기 최고의 비주얼리스트로 손꼽히는 웨스 앤더슨 감독은 1996년 데뷔작 <바틀 로켓>을 시작으로 <로얄 테넌바움>, <판타스틱 Mr. 폭스>, <문라이즈 킹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등의 작품을 통해 아름다운 미학을 선보여왔다. 이처럼 작품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창조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웨스 앤더슨 감독은 신작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비주얼을 선사할 예정이다.

“웨스 앤더슨은 매 작품 예술가로서 흥미로운 진화를 보여주었다. <프렌치 디스패치>는 그 어떤 작품보다 다채롭다”라고 전한 프로듀서 제레미 도슨의 말처럼 <프렌치 디스패치>는 웨스 앤더슨 감독이 추구하는 미학의 총 집합체로 구성되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그의 아이덴티티인 동화 같은 색채와 자로 잰 듯한 대칭 구도는 물론 애니메이션, 미니어처, 칼라와 흑백의 자유로운 전환까지 유니크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출 기법을 <프렌치 디스패치>에 모두 담았다. 특히, 미국 시사 주간지 『뉴욕거』에서 영감을 받아 <프렌치 디스패치>를 구상한 웨스 앤더슨 감독은 영화 프레임 하나하나가 매거진의 한 페이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특수한 구성에 세심한 심혈을 기울였다. 시각적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모든 샷마다 고유의 세트를 활용한 <프렌치 디스패치>는 무려 130여 개의 세트를 제작해 각 샷이 전하는 온전한 비주얼을 필름에 담아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색채와 이와 대비되는 흑백 시퀀스의 전환을 통해 매거진이 주는 매력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길 원했던 웨스 앤더슨 감독은 어떤 컬러가 흑백 영상에서 극대화된 효과를 전달하는지 색감부터 질감까지 면밀히 신경 쓰며 촬영을 진행했다.

이처럼, 웨스 앤더슨 감독 머릿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 놓은 것 같은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매거진을 읽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관객들을 ‘프렌치 디스패치’의 세계로 흠뻑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PRODUCTION NOTE 1

〈프렌치 디스패치〉의 출발점은 웨스 앤더슨 감독의 학창 시절?! 그가 직접 밝힌 마스터피스의 탄생 비화!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는 미국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의 최정예 저널리스트들과 4가지 특종의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극이 전개된다. 웨스 앤더슨 감독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의 학창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 시절, 웨스 앤더슨 감독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일러스트 표지 잡지를 발견하고 단번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 잡지는 바로 미국 시사 주간지 『뉴욕커』로 그 이후로 그는 이 잡지에 푹 빠진 애독자가 되었다. 웨스 앤더슨 감독과 오랜 친구인 배우 오웬 윌슨은 “대학 시절 웨스 앤더슨은 항상 『뉴욕커』를 읽고 있었다”라며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잡지 사랑을 증명했다. “<프렌치 디스패치>는 저널리스트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전언은 『뉴욕커』로부터 깊은 영감을 받은 그가 얼마나 이 이야기를 탄생시키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프렌치 디스패치> 극 중 4가지 특종을 둘러싼 주요 등장인물도 『뉴욕커』의 실존 인물들을 기반으로 탄생된 캐릭터들이다. 현대 미술에 조예가 깊은 기자 'J.K.L 베렌슨', 고독한 에세이스트 '루신다 크레멘츠', 자전거 타는 기자 '허브세인트 새저랙', 편집장 '아서 하워처 주니어', 탐욕스러운 미술상 '줄리안 카다지오' 등은 웨스 앤더슨 감독이 애정 하는 기자와 작가, 『뉴욕커』 공동 창립자, 19세기 영국의 미술상 '조셉 듀빈' 등의 실제 인물들에 독창적인 상상력이 더해져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로 완성될 수 있었다. 캐릭터뿐만 아니라, 영화에 등장하는 4가지 특종의 이야기도 『뉴욕커』 속 기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되었다. 프랑스의 '68혁명'에 대한 일지를 기록한 어느 한 기자의 이야기는 영화 속 '선언문의 개정'으로,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며칠 동안 감옥에서 회고록을 작성한 기자의 이야기는 '경찰서장의 전용식당'으로 탈바꿈하는 등 웨스 앤더슨 감독은 본인이 흥미롭게 읽은 이야기를 독특한 상상으로 살짝 비틀며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재창조했다.

PRODUCTION NOTE 2

1950년대 프랑스를 그대로 옮기다! 역대급 대규모 세트장으로 완성된 프랑스 가상의 도시 '블라제'!

세계 정치와, 예술, 대중문화 그리고 다양한 소식을 다루는 매거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는 가상의 프랑스 도시 '블라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가상의 도시 '블라제'를 영화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가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시대를 초월해 프랑스 전역을 상징하는 도시가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웨스 앤더슨 감독과 제작진들은 과연 어떤 도시가 '블라제'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프랑스 전역을 살살이 살펴보았다. 아무리 해매도 마땅한 도시를 찾을 수 없었던 제작진들이 편집을 통해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낼까 생각하던 찰나 운명적으로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유서 깊은 도시 앙굴렘에서 '블라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프로덕션 디자이너 아담 스톡하우젠은 “앙굴렘은 파리, 리옹과 같은 프랑스의 여러 도시의 느낌을 풍겼다. 특히 다양한 경사로와 계단, 구불구불한 골목 길은 영상 속에 흥미롭게 담겨 정말 놀라웠다”라며 앙굴렘을 촬영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했다.

앙굴렘을 촬영지로 최종 결정한 제작진들은 도시의 고유한 느낌은 그대로 활용하고 필요한 세트는 새롭게 제작하면서 앙굴렘 도시 전체를 거의 야외 세트장으로 바꾸다시피했다. 특히, 작품을 진행할 때마다 촬영 지역에서 대체 스튜디오를 마련하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집념은 이번 작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던 오래된 공장을 인수한 제작진들은 창고부터 모형 제작소, 촬영장 세트까지 완벽하게 갖춘 스튜디오로 완벽하게 변신시켰다. 이처럼 <프렌치 디스패치>의 도시 '블라제'는 앙굴렘 위에 웨스 앤더슨 감독만의 독특한 상상과 판타지가 더해져 완성되었지만 제작진들은 사실에 기반한 고증을 잊지 않았다. 영화의 시각적 토대부터 의상, 세트장까지 '블라제'의 모든 것들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탄탄하게 연구되어 보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

PRODUCTION NOTE 3

천재 감독의 명작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완벽주의자 웨스 앤더슨 감독의 촬영 현장 비하인드 대방출!

웨스 앤더슨 감독은 아름다운 미장센뿐만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촬영 현장을 구축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주요 촬영지를 아예 베이스캠프로 삼거나, 같은 장면을 수십 번 촬영하는 등 웨스 앤더슨 감독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촬영 현장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내 작품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린다.

웨스 앤더슨 감독과 오랜 기간 함께해 온 프로듀서 제레미 도슨은 “<다즐링 주식회사> 때부터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케이션을 섭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프렌치 디스패치> 촬영 기간 동안에는 모든 배우들과 제작진들이 같은 숙소에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가족 같은 친밀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촬영 현장은 배우들이 실제 영화 속 세계에 사는 기분을 들게 해 배우들이 연기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웨스 앤더슨 감독은 촬영이 진행된 앙굴렘 도시를 <프렌치 디스패치> 세계 그 자체로 변모시키기 위해 재미있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실제 앙굴렘에 거주하는 주민 1,000여 명을 섭외해 영화 속에 등장시키고, 영화 속 하이라이트에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앙굴렘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작업은 촬영지가 단순히 로케이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프렌치 디스패치> 세계에 빠져드는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하게 만들면서 영화 제작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더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영화 촬영 전 미리 영화의 장면을 구현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를 활용하여 각 장면마다 카메라의 움직임과 구도를 계산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프레임 속에는 캐릭터의 대사, 행동까지 모든 요소들이 퍼즐 조각들처럼 정밀하게 맞춰지게 되고 이때 비로소 웨스 앤더슨 감독만의 미학적 세계관이 완성된다. “짧은 신도 수십 번 촬영하며 완벽한 정교함을 추구하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모습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는 배우 티모시 샬라메의 말에서 완벽한 미장센을 완성하기 위해 작은 디테일도 절대 간과하지 않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완벽주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본인이 추구하는 미학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기 위해 노력하는 웨스 앤더슨 감독이 과연 <프렌치 디스패치>에서는 어떤 비주얼을 펼쳐낼지 궁금증과 기대를 높인다.

CHARACTER & CAST 1

현대 미술에 조예가 깊은 기자 'J.K.L 베렌슨'

현대 미술 평론가이자 문화 예술 전문 기자 'J.K.L 베렌슨'. 캔자스 아트센터의 강단에 선 그녀는 미치광이 천재 예술가 '모세 로젠탈러'의 옥중 예술작품 '콘크리트 걸작'을 대중에게 소개한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원한 뮤즈 I 틸다 스윈튼

늘 파격적인 변신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 배우 틸다 스윈튼이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현대 미술에 관해 취재하는 'J.K.L 베렌슨' 기자로 완벽하게 분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문라이즈 킹덤>등을 통해 웨스 앤더슨 감독이 선사하는 비주얼 세계관에 완벽히 녹아드는 연기를 선보인 그녀가 과연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캐릭터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Filmography]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2021), <라스트 앤 퍼스트 맨>(2020), <휴먼 보이즈>(2020), <더 퍼스널 히스토리 오브 데이빗 코 퍼필드>(2019), <더 수베니어>(2019), <어벤저스: 엔드게임>(2019), <서스페리아>(2018), <개들의 섬>(2018), <옥자>(2017), <닥터 스트레인지>(2016), <헤일, 시저!>(2016), <비거 스피드>(2015),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 <데스 포 어 유니콘>(2013), <제로백의 비밀>(2013), <데이빗 보위 뮤직 비디오 특별전: The Next Day>(2013),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2013), <설국열차>(2013), <라디오맨>(2012), <문라이즈 킹덤>(2012), <케빈에 대하여>(2011) 외

[Awards]

2020 제77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평생공로상
2017 제43회 새턴 어워즈 여우조연상
2013 스타일아이콘어워즈 본상
2012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2011 제24회 유럽영화상 유러피안 여우주연상
2009 제29회 런던 비평가 협회상 영국여우조연상
2009 제35회 새턴 어워즈 최우수 여우조연상
2007 제80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2007 제61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제 여우조연상
1992 제33회 테살로니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1991 제19회 시애틀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1991 제4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볼피컵 여우주연상

CHARACTER & CAST 2

고독한 에세이스트 기자 '루신다 크레멘츠'

원칙주의자이자 저널리즘의 진실성을 고집하는 고독한 에세이스트 '루신다 크레멘츠'. 학생 운동가의 리더 '제피렐리'가 선도하는 학생운동을 집중 취재하며 청년들의 분노와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최다 수상 기록의 연기파 배우 | 프란시스 맥도맨드

오스카 여우주연상 3관왕을 달성한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 배우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프렌치 디스패치>에 합류했다. 매 작품 캐릭터의 감정을 완벽하게 이끌어내는 연기를 펼치는 그녀는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언론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지만 학생운동을 펼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기자 '루신다 크레멘츠'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Filmography]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2021), <노매드랜드>(2020), <개들의 섬>(2018), <쓰리 빌보드>(2017), <헤일, 시저!>(2016), <굿 다 이노>(2015), <프라미스드 랜드>(2012), <문라이즈 킹덤>(2012), <마다가스카3 : 이번엔 서커스다!>(2012), <아버지를 위한 노래>(2011), <트랜스포머 3>(2011), <바터니 오브 디자인어>(2009), <번 애프터 리딩>(2008), <미스 페티그루의 어느 특별한 하루>(2008) 외

드라마 [멋진 창조들] (2019), [올리브 키터리지] (2014)

[Awards]

2021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2021 제74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2021 제74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2018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2018 제75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드라마부문 여우주연상
2018 제71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2018 제24회 미국 배우 조합상 영화부문 여우주연상
2018 제38회 런던 비평가 협회상 여우주연상
2018 제23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 여우주연상
2015 제67회 에미상 리미티드시리즈 영화부문 여우주연상
2015 제5회 크리틱스 초이스 TV 시상식 영화 리미티드시리즈부문 여우주연상
2015 제19회 새틀라이트 어워즈 미니시리즈 TV영화부문 여우주연상
2015 제21회 미국 배우 조합상 TV영화 미니시리즈부문 연기상
2014 제71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페르솔상
外

CHARACTER & CAST 3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편집장 '아서 하워처 주니어'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의 창간자이자 저널리스트들의 존경받는 편집장 '아서 하워처 주니어'. 최고의 저널리스트 4인과 발행본을 준비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부고를 알리고,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의 마지막 발행본을 준비하게 한다.

할리우드 대표 괴짜 배우 I 빌 머레이

특유의 뚱한 표정 연기와 시니컬한 유머로 남다른 존재감을 내뿜는 배우 빌 머레이는 웨스 앤더슨 감독 특유의 유머 감각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페르소나이다. 그는 이번 <프렌치 디스패치> 속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의 존경받는 편집장 '아서 하워처 주니어'를 맡아 웨스 앤더슨 감독의 특유의 시크한 유머 코드를 표현하며 예기치 못한 웃음을 전한다.

[Filmography]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2021), <온 더 락스>(2020), <데드 돈 다이>(2019), <개들의 섬>(2018), <카스바>(2016), <정글북>(2016), <어 베리 머리 크리스마스>(2015), <세인트 빈센트>(2014),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 <하이드 파크 온 허드슨>(2012), <어 글림프스 인사이드 더 마인드 오브 찰스 스완 3세>(2012), <문라이즈 킹덤>(2012) 외

드라마 [바이스 프린시펄스](2016), [올리브 키터리지](2014)

[Awards]

2004 제6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뮤지컬코미디부문 남우주연상
2003 제38회 전미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2003 제29회 LA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2003 제68회 뉴욕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2003 제16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1998 제33회 전미 비평가 협회상 남우조연상
1998 제24회 LA 비평가 협회상 남우조연상
1998 제63회 뉴욕 비평가 협회상 남우조연상

CHARACTER & CAST 4

해외파 박식가 기자 '로빅 라이트'

해외파 출신으로 TV쇼에 패널로도 출연하는 '로빅 라이트'는 일류 셰프 '네스카피에' 경위의 레시피를 취재하기 위해 경찰서장의 전용식당을 찾지만 예상치 못한 경찰서장 아들 납치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

한계 없는 연기 스펙트럼을 겸비한 배우 I 제프리 라이트

배우 제프리 라이트는 <헝거게임> 시리즈, <007> 시리즈 등을 통해 장르를 넘나드는 폭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해왔다. 수많은 작품에서 주조연 가리지 않고 신 스틸러를 자처하며 완벽 캐릭터 변신을 선보여왔던 그가 이번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매거진의 마지막 특종을 취재하는 기자로 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Filmography]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2021), <007 노 타임 투 다이>(2021), <시크릿 세탁소>(2019), <O.G.>(2018), <늑대의 어둠>(2018), <몬스터>(2018), <굿 다이노>(2015), <헝거게임 : 더 파이널>(2015), <헝거게임 : 모킹제이>(2014), <인에비터블 디핏 오브 미스터 앤드 피트>(2013), <헝거게임 : 캐칭 파이어>(2013), <싱글샷>(2012), <킹메이커>(2011), <소스 코드>(2011), <007 퀴텀 오브 솔러스>(2008) 외

드라마 [웨스트월드 3](2020), [웨스트월드 2](2018), [웨스트월드 : 인공지능의 역습](2016), [보드워크 엠파이어 5](2014), [보드워크 엠파이어 4](2013), [엔젤스 인 아메리카](2003)

[Awards]

2007 제43회 시카고국제영화제 캐리어 어취브먼트상
2005 샌디에이고 영화비평가협회 남우조연상
2004 제56회 에미상 시상식 미니시리즈영화부문 남우조연상
2004 제61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TV미니시리즈부문 남우조연상
2002 제1회 AFI 어워즈 TV영화미니시리즈부문 올해의 배우상
2000 토론토 비평가협회 남우조연상

CHARACTER & CAST 5

탐욕스러운 미술상 '줄리안 카다지오'

비상한 두뇌와 기막힌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미술상 '줄리안 카다지오'. 수감 동기였던 '모세 로젠탈러'가 그린 미술 작품이 큰 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출소하자마자 미술계 인사들을 교도소로 불러모은다.

개성 있는 마스크와 뛰어난 연기력을 소유한 배우 I 애드리언 브로디

깊이 있는 눈빛에 남다른 분위기를 내뿜는 마스크의 소유자 배우 애드리언 브로디는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최연소 수상에 빛나는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다. <다즐링 주식회사>를 시작으로 웨스 앤더슨 감독과는 3번째 작품을 함께하게 된 그는 욕심 많은 미술상 '줄리안 카다지오'로 분해 매력 넘치는 캐릭터를 선보이며 극에 재미를 더한다.

[Filmography]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2021), <대폭격>(2018), <볼렛 헤드: 파멸의 시작>(2017), <맨하탄 녹턴>(2016), <엠퍼러>(2016), <악의 도시>(2015), <백트랙>(2015), <드래곤 블레이드: 천장웅사>(2015), <아메리칸 하이스트>(2014),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 <써드 퍼슨>(2013), <1942>(2012), <렉트>(2011), <디태치먼트>(2011), <미드나잇 인 파리>(2011), <하이 스쿨>(2010), <프레데터스>(2010), <엑스페리먼트>(2010), <지알로>(2009), <스플라이스>(2009), <판타스틱 Mr. 폭스>(2009), <캐딜락 레코드>(2008), <블룸 형제 사기단>(2008), <마놀레떼>(2007), <다즐링 주식회사>(2007) 외

드라마 [후디니](2014)

[Awards]

2017 제70회 로카르노 영화제 평생공로상
2008 블랙릴 어워즈 베스트 앙상블상
2003 제75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2003 제28회 세자르영화제 남우주연상
2002 보스턴 영화비평가협회 최우수 남우주연상
2002 제37회 전미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CHARACTER & CAST 6

정신병원에 수감된 천재 예술가 ‘모세 로젠탈러’

미술계에서 화제를 모은 천재 화가이자 범죄자 ‘모세 로젠탈러’. 어린시절부터 예술적인 두각을 보였지만 잘못된 길로 빠져 정신병원에 수감된 그는 교도관 ‘시몬’에게 영감을 얻게 되고, 다시없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한다.

묵직한 연기로 스크린을 장악하는 배우 I 베니시오 델 토로

강한 카리스마와 눈빛을 지닌 배우 베니시오 델 토로는 영화 <트래픽>, <체 게바라> 등을 통해 베를린 영화제, 아카데미 시상식, 칸영화제 남우주,조연상을 휩쓸며 명실상부 할리우드 최고의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프렌치 디스패치>를 통해 웨스 앤더슨 감독과 처음 호흡을 맞추게 된 베니시오 델 토로는 천재 화가 ‘모세 로젠탈러’로 완벽하게 분해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것이다.

[Filmography]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2021), <체 게바라: 2부 게릴라>(2019), <체 게바라: 1부 아르헨티나>(2019),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2018),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2018),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2017), <어 퍼펙트 데이>(2017), <어린왕자>(2015),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2015), <인히어런트 바이스>(2015), <파라다이스 로스트: 마약 카르텔의 왕>(2014),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014), <지미 P>(2013), <바보 삼총사>(2013), <파괴자들>(2012) 외

[Awards]

2015 제28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 남우조연상
2014 제62회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평생공로상
2009 제23회 고아상 남우주연상
2008 제61회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2003 제60회 베니스 영화제 관객상
2002 제18회 선댄스 영화제 인디정신 공헌상
2001 제54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조연상
2001 제35회 전미 비평가 협회상 남우조연상
2001 제7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조연상
2001 제5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남우주연상
2001 제5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남우조연상
2001 제7회 미국 배우 조합상 영화부문 남우주연상
外

CHARACTER & CAST 7

자전거 타는 기자 ‘허브세인트 새저랙’

자전거를 타고 ‘블라제’ 거리의 구석구석을 취재하는 기자 ‘허브세인트 새저랙’. 프랑스의 본질이 녹아든 ‘블라제’의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취재에 나선다.

다재다능한 할리우드의 만능 엔터테이너 | 오웬 윌슨

배우부터 시나리오 작가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웬 윌슨은 웨스 앤더슨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최고의 파트너로 손꼽힌다. 특유의 부드러운 이미지와 친근한 캐릭터로 사랑을 받고 있는 오웬 윌슨은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거리를 취재하는 ‘허브세인트 새저랙’ 기자 역을 맡아 영화 초반 흥미를 자극하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Filmography]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2021), <마스터마인드>(2018), <로스트 인 런던>(2017), <파더 피거스>(2017), <원더>(2017), <카3: 새로운 도전>(2017), <쥬랜더 리턴즈>(2016), <이스케이프>(2015), <인히어런트 바이스>(2015), <박물관이 살아있다 : 비밀의 무덤>(2015), <쥬스 퍼니 댕 웨이>(2014), <터키>(2014),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 <아 유 히어>(2013), <인턴십>(2013), <우디 앨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2012), <미드나잇 인 파리>(2012), <더 빅 이어>(2011), <홀 패스>(2014), <카 2>(2011), <미드 페어런츠 3>(2011), <에브리씽 유브 갓>(2010), <마마듀크>(2010), <판타스틱 Mr. 폭스>(2009), <박물관이 살아있다 2>(2009) 외

CHARACTER & CAST 8

교도관이자 천재 예술가의 뮤즈 ‘시몬’

차가운 얼굴로 수감자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냉철한 교도관 ‘시몬’. 어느 날, 수감자 ‘모세 로젠탈러’의 예술적 능력을 알아차린 그녀는 그의 뮤즈를 자처하고, 그 이후 아무도 알아서는 안되는 교도관과 수감자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다.

대체불가 신비한 매력으로 스크린을 사로잡는 배우 I 레아 세이두

<가장 따뜻한 색, 블루>를 통해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레아 세이두는 이후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매력 넘치는 캐릭터 연기를 선보여왔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이어 <프렌치 디스패치>의 ‘시몬’역으로 웨스 앤더슨 감독의 선택을 받은 레아 세이두는 수감자를 통제하는 동시에 그의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는 두 얼굴을 가진 교도관 ‘시몬’ 캐릭터를 놀라운 연기력으로 소화하며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인다.

[Filmography]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2021), <007 노 타임 투 다이>(2021), <오 머시!>(2019), <조>(2019), <쿠르스크>(2019), <단지 세상의 끝>(2017), <007 스펙터>(2015), <더 랩스터>(2015), <어느 하녀의 일기>(2015), <생 로랑>(2015), <그랜드 센트럴>(2014), <미녀와 야수>(2014),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 가장 따뜻한 색, 블루>(2014), <페어웰, 마이 쿤>(2013), <시스터>(2012), <미드나잇 인 파리>(2012), <마이 와이프스 노블>(2011), <미션 임파서블 : 고스트 프로토콜>(2011) 외

[Awards]

2013 제66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CHARACTER & CAST 9

학생 운동의 리더 '제피렐리'

자유와 이상을 외치는 프랑스 청년들의 학생 운동을 대표하는 리더 '제피렐리'. 그는 학생 운동의 방향을 결정지을 선언문 작성을 위해 고민을 하는 도중 학생 운동을 취재하는 '루신다 크레멘츠' 기자를 만나게 된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 I 티모시 샬라메

여심을 저격하는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티모시 샬라메가 미장센의 대가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에 참여한다는 소식은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다.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자유를 외치는 학생 운동가들의 리더 '제피렐리'역을 맡은 티모시 샬라메는 열은 콧수염과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외적인 변신까지 꾀하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보여준다.

[Filmography]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2021), <들통>(2021), <레이니 데이 인 뉴욕>(2020), <작은 아씨들>(2020), <더 킹: 헨리 5세>(2019), <뷰티풀 보이>(2019), <미스 스티븐스>(2019), <햇 썸머 나이트>(2018), <몬태나>(2018), <레이디 버드>(2018), <콜 미 바이 유어 네임>(2018), <애더럴 다이어리>(2016), <러브 더 쿠퍼스>(2015), <원 앤 투>(2015) 외

[Awards]

2019 제30회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2018 제22회 할리우드 필름 어워즈 남우조연상
2018 제33회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남우주연상
2018 제38회 런던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2018 오스틴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2017 플로리다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2017 제52회 캔자스시티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2017 제30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2017 샌디에이고 비평가 협회상 주목할만한 배우상
2017 피닉스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2017 제43회 LA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2017 제82회 뉴욕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2017 제32회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 비르투오소상
2017 제89회 전미 비평가 위원회 주목할만한 배우상
2017 제27회 고담 어워즈 주목할만한 배우상
2017 제28회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라이징스타상
2017 제21회 할리우드 필름 어워즈 주목할만한 배우상

CHARACTER & CAST 10

냉철하고 용감무쌍한 학생운동가 '줄리엣'

남다른 이상을 가지고 학생운동에 참여한 '줄리엣'. 자신과 다른 가치관으로 학생운동을 펼치는 '제 피렐리'와 사사건건 부딪히지만 학생 혁명이 정점이 이르렀을 때 둘이 관계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제45회 세자르상 신인여우상 수상 I 리나 쿠드리

프랑스 출신의 배우 리나 쿠드리는 1990년대 알제리를 배경으로 당시 내전 상황과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억압된 여성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 <파피차>를 통해 제45회 세자르영화제에서 신인여우상을 수상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 '나즈마'역으로 영화계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신인답지 않은 안정적인 연기력에 신비로운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리나 쿠드리는 이번 작품을 통해 할리우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를 전망이다.

[Filmography]

영화 <가가린>(2020), <배틀 오브 레전드>(2019), <파피차>(2019), <더 스페셜즈>(2018), <루나>(2018)

[Awards]

2020 제45회 세자르영화제 신인여우상

CHARACTER & CAST 11

고급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 '네스카피에' 경위

'경찰서장'에게 요리를 대접하던 중 예기치 않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일류 셰프. 일본일초가 다급한 지금 이 순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그의 특별 레시피다.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국계 배우 | 스티브 박

미국의 코미디언 출신의 한국계 배우 스티브 박은 영화 <설국열차>에서 일본인 장교 역을 맡아 눈길을 사로잡으며 이름을 알렸다. 웨스 앤더슨 사단에 새로이 합류한 그는 일촉즉발 긴장감에 재미를 더하는 인물, 일류 셰프 '네스카피에' 경위로 완벽 변신해 신 스틸러의 면모를 제대로 과시할 전망이다.

[Filmography]

영화 <카조니어>(2020), <돈 버딘>(2015), <썸원 엘스>(2014), <웨딩 펠리스>(2013), <설국열차>(2013), <굿모닝 에브리원>(2010), <시리어스 맨>(2009) 外

CHARACTER & CAST 12

아들이 납치된 블라제의 '경찰서장'

자신의 전용 식당에서 지인들을 불러 일류 셰프의 고급 요리를 대접하던 '경찰서장'은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아들을 납치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한다.

훌륭한 연출력을 갖춘 감독이자 프랑스 대표 배우 | 마티유 아말릭

마티유 아말릭은 제60회 칸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유수 영화제의 상을 휩쓸었던 영화 <잠수종과 나비>에서 혼신의 연기를 선보여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프랑스 대표 배우다. 인상 깊은 연기력을 겸비한 그는 <프렌치 디스패치> 속 가장 급박한 사건을 이끌어 가며 관객들에게 재미를 전사할 예정이다.

[Filmography]

영화 <찰리 채플린, 더 지니어스 오브 리버티>(2020), <사운드 오브 메탈>(2019), <장교와 스파이>(2019), <고흐, 영원의 문에서>(2019),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2019) 외

[Awards]

2017 제70회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부문 각본상
2010 제63회 칸영화제 감독상
2008 프랑스 뤼미에르영화제 남우주연상
2008 제33회 프랑스 세자르 영화제 남우주연상
2007 코펜하겐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2007 히혼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2005 프랑스 뤼미에르영화제 남우주연상
2005 제30회 프랑스 세자르 영화제 남우주연상
1997 제22회 세자르영화제 신인남자배우상

DIRECTOR

**21세기 할리우드 최고의 비주얼리스트!
유니크한 감각으로 전세계를 매혹시키다!**

웨스 앤더슨 감독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니크한 감각으로 아름다운 미장센을 만들어내는 웨스 앤더슨 감독. 첫 데뷔작인 <바틀 로켓>부터 기존의 틀을 깨는 촬영 기법과 팔레트를 옮겨 놓은 듯한 색감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웨스 앤더슨 감독은 세계적인 거장들과 영화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는 연출가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로얄 테넌바움>, <다즐링 주식회사>, <판타스틱 Mr. 폭스>, <문라이즈 킹덤> 등의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확고히 다져온 웨스 앤더슨 감독은 수많은 마니아를 생성하며 웨스 앤더슨 신드롬을 일으켰다. 특히, 그는 동화 같은 색감과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로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았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통해 미장센의 대가, 이 시대 최고의 비주얼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처럼 매 작품 자신만의 독특한 미학을 관객들에게 관철시키는 웨스 앤더슨 감독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비주얼로 3년 만에 신작 <프렌치 디스패치>를 선보인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번 작품에 모두 담았다”라고 밝히 그가 펼쳐낼 놀랍고 환상적인 <프렌치 디스패치>의 세계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린다.

[Filmography]

영화 <개들의 섬>(2018),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 <문라이즈 킹덤>(2013), <판타스틱 Mr. 폭스>(2009), <다즐링 주식회사>(2007), <스티브 지소와의 해저 생활>(2004), <로얄 테넌바움>(2002), <맥스군 사랑에 빠지다>(1998), <바틀 로켓>(1996)

[Awards]

2015 제67회 미국 작가 조합상 각본상
2015 제7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뮤지컬코미디부문 작품상
2014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심사위원상
2010 제34회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안시 크리스탈상
2010 제34회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장편부문 관객상
2009 제35회 LA 비평가 협회상 애니메이션상
2007 제18회 스톡홀름영화제 비전상
1998 제24회 LA 비평가 협회상 신인상
1996 MTV영화제 신인 제작자상